

40%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파격 할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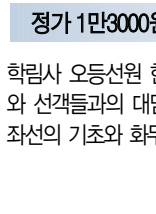
을 여름
현대불교신문의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기간-
7월16일~8월 17일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 할인가 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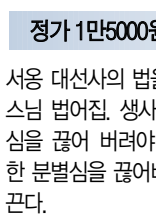
정가 1만3000원 →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동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았다. 또한 전편 한정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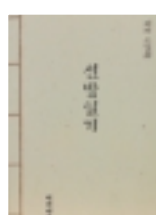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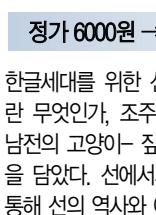
정가 1만5000원 → 할인가 9000원
서용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중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 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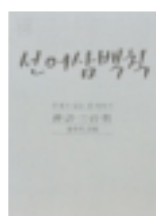
정가 5000원 →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불교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을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 한형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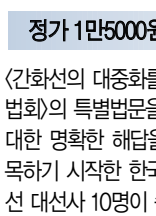
정가 6000원 → 할인가 3600원
한글시대를 위한 선佛불교 강서의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가-시별경계 단 쇠뿔을 삼키듯, 남전의 교양이- 집안을 벗어 버리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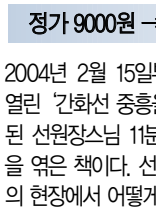
정가 1만5000원 →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살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꼭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사(禪書)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비림은 허공의 딸꼭질, 허응당 보우-선의 마음 시의 마음, 청허당 휴정-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너는 누구나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행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 (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

아! 위대한 5,343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金剛經

● 특별보급가 : 5,000,000 ▶ 2,100,000원
10류 병풍 (폭넓이 : 44cm / 높이 : 542자) ※선화 35점 한정 판매합니다.

서예작가 정담스님이 열목 병풍 5,183자 금강경 작품작업을 45여일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쓴 작품입니다.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소장할 수 있게 대승불교의 핵심인 장엄한 금강경 병풍을 자랑하게 보시기적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에 한 점씩 소장하십시오. 영원불멸의 재산가치가 될 것입니다. 생애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스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 입금경장 계좌번호 : 81-127443-00207 예금주: 김근(한정명)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7-27번지 상봉사 공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 051)806-0316 / 휴대전화 : 011-488-0316

【서예작가 정담스님 약력】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동양철학석사 (2002년 대한민국 사회(대중)예술의 전당 최우수상(한인상))
한중수교 10주년 중국선동성 박물관 전시(대상(금강경)) (2003년 출판(백인)번아상상, 금강경, 한시, 박복도 등 전 작품 출품(북경공예미술 대학초대 한중문화 교류전(대상(상채상 수상))
2002년 미국인인 100주년 기념 한미 주립대학 초청(대중/미국 한미)와이카기 아트 갤러리(대상)
저서 : 佛理學(제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한국불교 1,600년사 불교TV 생애 공로상 수상

● 사진에 있는 금강경병풍보다 실제 작품이 훨씬 뛰어납니다.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에 있는 '사주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 것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리' (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로 감정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밝은 마음 살림살이를 우리들에게 몽땅 털어놓으신 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무한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 마음속의 음달인 재앙과 업장이 소멸되고 우환이 나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16 能淨業障分(능정업장분) 업장 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데는 금강경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제8 依法出生分(의법출생분)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도 모두 이 金剛經에서 나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제, 천도의식, 참선, 기도, 염불, 경전공부 등 불교교리의 거대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랜세월 화엄경을 읽고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80생에 팔만대

장경 49편을 분류해 보면 아함부 12편, 방등부 8편, 반야부 21편, 법화부 8편 합해 49편입니다.

불교중심의 책을 이루는 금강경은 반야부 21편 여기에 속하고 600백권의 방대한 반야 사상 경전에 금강경은 제 577권에 해당됩니다.

금강경은 불교 교리를 거대한 수미산 산맥에 비유해 볼 때, 그 산 정상에 향해 올라가는 여러 길중에서 바로 질러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 금강경입니다. 金剛經若波羅密經은 부처님의 八萬大藏經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생애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延壽스님의 마지막 작품 금강경 병풍을 이번 기회에 한정적 소장 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기 어려우면 사구(계사행시)라도 지녀 외우면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큰 공덕을 짓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한다고 설하셨습니다.

<p>● 제11 사구계 : 如理實見分 (여리실견분) 제5 凡所有相 (범소유상) 皆是虛妄 (개시허망) 若見諸相非相 (약견제상비상) 即見如來 (즉견여래)</p>	<p>● 제10 사구계 : 莊嚴淨土分 (장엄정토분) 제10 不應住色生心 (불응주색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應無所住 (응무소주) 而生其心 (이생기심)</p>	<p>● 제16 사구계 : 法身非相分 (법신비상분) 제16 若以色見我 (약이색견야) 以音聲求我 (이음성구야)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p>	<p>● 제32 사구계 : 應化非真分 (응화비진분) 제32 一切有爲法 (일체유위법) 如夢幻泡影 (여몽환포영) 如露亦如電 (여로역여전) 應作如是觀 (응작如是觀)</p>
---	--	--	--